광주 디자인비엔날레 '동네잔치' 되나

서울시, 올해부터 '세계디자인 올림픽' 개최

컨셉 비슷하고 시기 겹쳐 … 차별화만이 살길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광주의 대표적인 문화 브랜드인 디자인 비엔날레가 '안방잔치'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디자인 문화종합축제인 '세계디자인 올림픽 (World Design Olympiad SEOUL 2008·이하 디자인 올림픽)'을 올해 10월부터 매년 개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디자인 올림픽은 광주디자인 비엔날레의 개최시기와 겹치는 데다 예산면에서도 디자인 비엔날레(50억원)의 3배가 넘는 150억 규모의 초대형 디자인 축제로 치러져 내년 10월에 열리는 3회 디자인 비엔날레와 정면승부를 벌이게 됐다.

또한 세계디자인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디자인 비엔날레와 전시컨셉도 비슷해 같은 해에 열리게 될 경우 관람객 및 후원기업 유치 등에서 치열한 경쟁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1일 임우진 광주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 마케팅본부, 경제통상국, 재단 디자인전시팀과 홍익대 이순인(57·제2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찾은 광주지역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시작품을 둘러보며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디자인계 핵으로 떠오른 디자인올림픽

서울시는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WDC)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올해부터 2년간은 디자인올림픽을 프레올림픽(Pre-Olympic) 형식으로 치르고, 2010년부터 제1회 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기간은 디자인비엔날레와 비슷한 시기인 10월10~30일까지이며 대회장소는 잠실종합운동장이다.

서울시는 디자인올림픽을 통해 자하 하디드, 니콜러스 네그로폰테 전 미국 MIT 미디어랩 소장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장기적 비전을 밝혀 이에 대응할 만한 광주시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디자인비엔날레는 적지 않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올림픽에는 국내외 디자이너와 디자인 교육가, 학생, 일반시민과 관광객 등 200만명 가량의 인원이 참가하고 직·간접적 경제 파급효과도 4천600억원 예상된다.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서울불꽃축제, 열린음악회 등과 연계해 관람객을 유치한다는 복안이어서 디자인비엔날레 관람객의 30~40%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 일대 관람객 유치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차별화만이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살길

서울시가 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하자 광주시와 비엔날레 재단은 비상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임우진 행정부시장은 1일 오후 부시장실에서 비엔날레재단, 디자인센터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 비엔날레 위상과 내년 3회 대회일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디자인학술회의, 월드디자인총회와 연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국제 디자인 행사와 공동 마케팅을 통한 세계화 추진 ▲'빛'을 컨셉으로 한 주제의 차별화 ▲남도 문화를 토대로 한 독창성 확립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순인 교수는 "디자인올림픽은 서울시가 지닌 경쟁력과 인프라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디자인비엔날레의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세계 2대 빅 이벤트인 디자인학술회의, 월드디자인총회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비슷한 디자인 행사들 속에서 (디자인 비엔날레가) 살아남으려면 광주의 대표산업인 LED 산업과 연계, '빛'을 주제로 특화시켜야 한다"며 "특히 호남지역의 전통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쥐의 모든 것 그림으로 표현

광주신세계갤러리 1~13일 '쥐구멍에도…' 전시회

2008년 무자년(戊子年) 쥐띠 해를 맞아 쥐를 다양한 시각으로 보여주는 이색 전시가 열린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1~13일까지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는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김상연, 마문호, 문형선, 박구환, 박수만 박유진, 장호현 등 15명의 작가가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조각 등 쥐에 대한 특이하고 흥미로운 해석을 표현한 다채로운 작품을 전시한다.

조각가 김강석씨는 열두 동물이 경주를 벌이는 띠 관련 설화를 표현한 '우남서녀(牛男鼠女)'를, 박수만씨는 쥐를 의인화해 서로 껴 앉고 있는 모습을 그린 'free hugs'를 각각 선보인다.

조승기씨는 새장 같은 집에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 들여다 볼 수 있게 한 설치작품 '볕들 날'을 통해 희망을 보여준다. 문의 062-360-163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강석 작 '우남서녀'

김진화 작 '사과 새 그리고 열쇠'

뮤지컬 '뽀로로와 요술램프' 공연

2~3일 광주문예회관

EBS를 통해 방영중인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인공 뽀로로는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캐릭터다.

뽀로로가 등장하는 뮤지컬은 어떤 재미를 줄까.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요술램프'가 2~3일(오전11시, 오후 2시·4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장난꾸러기 꼬마 펭귄 뽀로로, 영리한 꼬마 발명가 여우 에디 등 사랑스런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이번 작품에서는 새롭게 선보이는 동화 속 요술램프로 인해 뽀로로와 친구들이 겪게 되는 좌충우돌 여행기가 춤과 노래로 펼쳐진다.

또 바닷 속 풍경과 거대한 요술고래가 등장, 어린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티켓 가격 3만~3만5천원.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아교육 프로그램 '꾸러기' 첫 선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올 사업 발표

제작 교육·시민 참여 프로그램 강화

24시간 편집실·미디어 자료실 개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김종일·이하 미디어 센터)가 2008년 주요 사업을 발표했다.

미디어센터는 올 한해 100여편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퍼블릭 액세스)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영상 제작 아카데미' '라디오 제작교실' '스튜디오 인력 양성교실' 등 제작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유아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인 '꾸러기'를 새롭게 시작한다.

미디어 센터는 또 '소리 신문-디딤소리' '자막방송 제작교실' '화면해설 방송'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제작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밖에 지난해 인기를 모았던 '거침 없이 동영상' '부모랑 만드는 미디어 동화' '어르신 클릭 미디어' '토요 디카 오감 활용법' 등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미디어 센터 방문 체험 프로그램인 '미소 프로젝트'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미디어 센터는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도 대폭 강화한다. 센터 1층에 카페테리아와 어린이 놀이방등을 만들 예정이며 독립영화와 퍼블릭 액세스 작품, 영상 관련 책자, 1인 감상실과 다인 감상실 등을 갖춘 미디어 자료실도 개설한다.

특히 영상 관련 작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편집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24시간 편집실을 운영하며 놀이터 상영회, 소외 지역 찾아가는 상영회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유아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는 등 2008년에도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사진은 지난해 미디어 센터가 진행한 '가족뉴스 제작 프로그램' 진행 모습.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난해 6월 개관한 미디어 센터를 찾은 이용객은 3만 6만6천여명, 프로그램 참여자는 1만3천여명이었다. 문의 062-350-23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국제문화교류협의회 출범

광주를 아시아 국제 문화 교류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광주시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광주시 문화정책관실을 비롯해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등 지역 민간단체와 대학들은 지난달 30일 모임을 갖고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문화 교류를 위해 '광주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상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에는 광주비엔날레, 중국영사사무소, 광주국제교류센터, 유네스코광주전남협회, 광주예총, 대동문화,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과학기술원 등 모두 13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진채 유네스코 광주전남협회 상임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부회장과 감사로는 신경구(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 조상렬(대동문화재단 회장)씨를 뽑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